



천불탑에 투영된 수행자의 길

이판과 사판의 갈등 '불사' 통해 치밀하게 묘사

'갠지스 강은 영원하지만 천불탑은 유한하오. 갠지스 강이아말로 영원한 탑이 아니겠소. 아니, 온 세상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탑인데 굳이 사리를 구해 어디다가 모신다는 말이오. 다 짐승의 꿈일 뿐이요.'

미망과 깨달음은 둘로 나뉘지 않는 것일까? 저자 정천주가 실제 인도를 여행하며 세상의 청정을 발견하고자 하는 구도의 심정으로 써내려간 소설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붓다와 만나야 할 불타워은 주인공 최립은 저자의 내면을 반영한 인물로 등장한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상에 환생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서원으로 늦여름을 보내고 가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서 그들은 깊고도 깊은 사바세계 속으로 한없이 질주한다.

과연 '법상 스님의 길이 옳은 것인가, 지웅 스님의 길이 옳은 것인가' 모두가 혼돈스럽다. 형상으로도 소리로도 부처를 찾지 말라 하는 선승 법상 스님이 있다. 반면 장엄한 탑을 조성해 불국토를 이루고 말겠다는 불퇴전의 의지를 지닌 야심찬 수행자 지웅 스님은 궁극의 진리라

는 동일한 화두 앞에서 법상 스님과 서로 얽혀 있다.

소설 <천불탑의 비밀>은 실제 황룡사 9층탑을 모델로 삼는다. 천불탑은 무려 80m 높이의 기반(基壇)은 200평수의 법당형태로 조성 중이다. 지웅 스님은 부처님의 사리를 천불탑에 봉안해 불국토를 한반도에 완성하고픈 일념뿐이다. 신라 고승 자장 율사가 원을 세우고 출중한 지혜를 지닌 선덕여왕 명으로 조성했던 황룡사 9층탑, 불법의 진리로 그 빛을 천지 사방으로 흩뿌리고자했던 본 뜻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천불탑에 봉안될 사리를 모셔오겠다고 인도로 향한 법상 스님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갈등은 심화된다.

시간이 흘러 한반도의 중심 중원에 아랑의 결정체 천불탑이 그 위용을 드러내는 순간이 도래한다. 최립의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천불탑이 솟아오른다. 형상에 그림자가 따르듯 무형의 소리탑이 울리는 풍경소리의 함성이 펼쳐진다. 지혜를 구해 성불하고자하는 운수승과, 중

생을 제도해 성불하겠다는 사 관승의 구도심은 부 처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 들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마음에 지니는 양 면성일 것이다.

출가 수도승의 변뇌가 무엇인지 엿보고 싶었던 것일까? 저자는 후기를 통해 "인도를 여행하면서 체험한 가치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한다.

'부처가 되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의문에서 시작된 소설 <천불탑의 비밀>은 그 길로 들어선 이상 제어 불가능한 속도로 달려야만 하는 고속도로 위의 실존을 탐구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천불탑의 비밀

정천주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 원



선가 고전 최초로 번역



증도가 언기주(證道歌 彦琪註)
제월통광 현도역주
불광출판사 펴냄 | 2만 원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게 피네. 본분의 지리는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들이 없으니 수행하여 깨달음이 달리 있을까.'

시대를 초월한 선가의 고전이 최초 번역됐다. 무명의 미혹이 곧 불성임을 환기하는 방편문의 정수를 맞본다.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 대한 언기 스님의 주석을 제월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조계종 역경위원장)이 현토를 달고 역주해 대승선(大乘禪)과 돈오선(頓悟禪)의 진수를 전한다. 수많은 선사들이 증도의 가르침으로 삼아 수행을 점거하는데 인용된 선가의 고전이이다.

<증도가 언기주>가 <증도가>의 주석서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히는 것은 영가 스님의 <증도가>와 언기 스님의 주석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기 스님의 주의 원문에 현토하고 직역함으로써 원전 해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다. 부록에는 역대 조사의 전법계를 수록해 주옥같은 계송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월통광 스님은 1940년 지리산 칠불사 인근마을에서 출생, 1959년 당시 서울암에 주석하던 여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오대산 월정사 탄허 스님의 법을 이어 지리산 칠불사를 복원, 현재 회주와 강원 강주의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고봉화상 선요·어록>과 <초의다선집> 등이 있다.

가연숙 기자

종교전문기자의 오지 암자 기행담



하늘이 감춘 땅

조현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 1만4000원

종교·명상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오지 암자를 여행하며 써내려간 기행담을 책으로 냈다. '거기(there)'가 아닌 '여기(here)'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보배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담긴 순례자의 작은 선편다.

<하늘이 감춘 땅>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넷에 '조현기자의 휴식지'으로 연재돼 온 은둔 수도처를 감투리했다. 저자는 차로도 갈 수 없는 수백리 산길을 홀로 걸어간다. 무인지경(無人之境)의 암자에 기거하는 수행자와 만나 나눈 대화를 가슴에 심고서 다시 대중

결으로 돌아와 풀어놓기를 반복했다. 저자가 맛본 홀로 아리랑의 묘미가 솔직 담백하다.

상무주암에 올랐을 때 일이다. '오르기 전 꿈속의 삶이 너무나 복잡다단해서였을까. 청정한 암자 음식이 오염된 세인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것일까. 암자에 머문 3일 동안 설사가 끊이지 않아 천물도 마시지 않고 설사를 멈출 일을 고심하는데 스님은 오히려 편소리다. "천물도 계속 마셔서 몸팡 쏟아버려. 버릴 것은 버려야지!"하는 것이다.'

에누리 없는 선승의 경력을 죽비삼아 거친 속을 달랜 경험을 풀어 놓는다.

신문사 안팎에서 저자의 별명은 '선사'다. 그가 절보다 더 절 같고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 세인의 고단함을 도다여준 천상의 샘물을 맛본 이야기가 맑게 그려진다.

가연숙 기자

장례문화지도자 위한 개론서



불교 상징문화 연구

백성 지음 | 한지 펴냄 | 1만5000원

죽음과 관련한 모든 문화를 아우른 사례 개론서이다.

고문헌의 번역과 규정적 인식을 그대로 답습해온 기존의 문헌증거자료를 다각도로 해석했다. 상례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다변화된 현상들을 나름대로 수집해온 필자가 보편성과 특이성을 기초로 새롭게 접근한다. 불교와 민속 그리고 무속 사상과 불교 생태학을 기초로 유교·도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와 같은 기타 관련 종교까지 필요한 사례를 활용했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2 | 아벨로케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 월호 | 운주사 |
| 3 | 인과경 | 현담 | 선 |
| 4 | 구름을 헤치고 내은 달처럼 | 정명 | 불교정신문화원 |
| 5 |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과경 | 불광출판사 |
| 6 | 산심 | 해인 | 클리어마인드 |
| 7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월호 | 불광출판사 |
| 8 |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 김광하 | 운주사 |
| 9 | 이와 같이 살았으면 | 무비 | 연화실 |
| 10 | 나를 깨우는 108배 | 구본일 | 김영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株)天星建設

석·납골당 전문
석·굴법당 전문

석·납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파타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화 041)331-6863~5
팩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민속죽염

20년 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s.co.kr

관세음보살 손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원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훘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전, 심재발란 관세구세 병고역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손금 22K, 케이스 : 케노텍(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x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 100번지 각원사 해일 합창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대웅전 건립불사

천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셔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